

연중 제31주일(2017년 11월 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11월 위령 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령 성월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이미 작성해 놓고 살아갑니다. 저는 죽어도 특별히 저를 챙겨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힐 것인지, 또 장례미사는 어디에서 누가 집 전할 것인지, 그리고 많진 않겠지만 재산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죽은 후에 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유언을 남겨 놓았습니다. 죽고 나면 육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체의 일부는 장기 기증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해당 병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신은 화장을 해서 우리 성당 묘지에 매장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둘째, 그 시간과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셋째,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자신의 몸뚱아리조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진리라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을 때 다 바리바리 싸갈 것처럼 살지만 그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당 가고 싶으시죠? 하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성당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 천당 가고 싶으시죠?”하고 물어보면 다 가고 싶다고 번쩍 손을 드십니다. 천당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럼 지금 갈까요?”하고 물어보면 다 절대 아니라고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십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고 싶지만, 천당간다고 지금 죽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천주교 공원묘지 앞에는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좀 섬찝한 표현이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더더욱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루하루 의미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령 성월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 다가올 우리 자신의 죽음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새롭게 성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나와 덧없이 살다가, 덧없이 그냥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 해집니다.

참된 의미를 찾아 열심히 보람있게 그리고 좋은 기억 많이 남기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한 행복과 희망을 품고 가야 하는 여행길입니다. 그 여행길이 끝날 때, 그래도 돌아보면 참 아름다웠노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인생을 참으로 진실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예수님은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겸손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스스로 잘 난 척 많이 하고, 남들 시선 의식해서 늘 잘 보이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별로 안 친합니다. 그렇죠? 조용히 묵묵히 봉사하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참 아름답고,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찾아온 11월 위령 성월, 깊어가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정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을 조용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벗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이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정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이 깊어가는 가을, 위령 성월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더 늦기 전에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하는 시간이 왔을 때, 내 인생 헛되지 않았노라고, 허무하지 않았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말입니다.

천상병 님의 '귀천'이라는 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아름답게 살다 가십시오!